

美민주 전대 해리스 대선후보 확정

22일까지 나흘간 대선 출정식 바이든·오바마·클린턴 총출동 비운세·스위프트 공연 준비도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당대회 대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가상 호명투표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전대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정보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짐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윌즈 주지사는 전대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이번 대선 최대 경쟁자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로 곳곳을 누비며 전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8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해

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5%)에게 4%포인트 앞섰다.

CBS 방송과 유거브의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51%의 지지를 기록해 48%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세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당의 정·부통령 후보 해리스·윌즈 조의 대선 출정식으로 설정하고 11월 대선 승리의 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민을 위해'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세운 19일 전대 첫날 행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예정이다.

'미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주제로 한 20일 행사에서는 시카고가 정치적 고향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서 전대 열기를 돋운다.

이날에는 각 주와 자치령을 대표하는 57명의 대의원들이 차례대로 연설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윌즈 주지사를 상징적으로 인준하는 대면 호명투표 절차도 예정돼 있다.

호명투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시작해 해리스 부통령과 윌즈 주지사의 지지 기반인 캘리포니아, 미네소타에서 마무리된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주제인 셋째 날 21일 행사

에서는 부통령 후보인 팀 윌즈 주지사가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윌즈 주지사를 소개하는 연설을 맡을 예정이며, 윌즈 주지사의 부인 그웬 윌즈 여사도 연단에 선다.

하이라이트인 22일 넷째 날 행사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의 미래와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집권 비전을 공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할리우드 스타들도 대거 몰려 이번 전대를 축제로 꾸밀 예정이다.

행사 둘째날 2000년과 2020년 민주당 전대에서의 모습을 보인 존 레전드의 공연이 예정돼 있고, 셋째날인 21일에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을 다룬 미드 '비프'(Veep)에서 부통령 역을 맡은 줄리아 루이-드레이퍼스가 사회를 맡아 8명의 여성 민주당 주지사들과 대담하는 자리도 진행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과시해 온 팝스타 비운세의 깜짝 공연 가능성을 비롯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모습을 보일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연합뉴스

“2030년 20% 복원”...EU ‘자연복원법’ 발효

일부 회원국 반대...이행이 관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U 행정부 적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이날 발효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2030년, 2040년, 2050년 등 각 시점에 맞춰 복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 의견 제시 등을 거쳐 각국 사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확정된다.

EU 환경 감독기관인 환경청은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정기 평가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새 법은 EU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잇단 노력에도 진행 중인 생태계 손실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자연복원법 입법 과정이 험난했던 만큼 법이 발효되더라도 각국의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자연복원법은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막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유럽의회 선거(6월) 등을 앞둔 상황에서 환경규제에 반발하는 농민의 '트랙터 시위'가 유럽 각지로 확산하면서 입법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국 최종안은 '식량안보 위협'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복원 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긴급 제동' 장치를 두는 등 농업에 영향을 주는 의무가 일부 완화됐다. /연합뉴스

하마스 휴전 중재안 거부...“네타냐후 요구 반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18일(현지시간) 앞서 미국 등이 제시한 가중협상의 새 중재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은 해소되지 않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하마스는 중재안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만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장기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휴전 합의를 지연시키고, 이스라엘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에 노출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다고 몰아세웠다.

하마스는 "우리는 중재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점령군(이스라엘군)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

하도록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달 내놓은 제안에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제안은 하마스가 지난달 4일 그간 요구해온 선제적 영구 휴전을 빼고 제시한 수정안을 가리킨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집트·카타르는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가 불참한 채로 휴전 협상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도출된 새 중재안은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에 전달됐다.

이날 하마스의 중재안 거부 입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직후에 발표됐다.

휴전 압박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 등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로이터는 "하마스의 성명은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 도착 불과 몇 시간 뒤 나왔다"며 "이는 협상 타결에 대한 희망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일자민당 총재선거 스타트...후보 10여명 거론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입후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현지 공영방송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튿날(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총재 선거 일정을 결정한다.

투·개표일은 다음 달 20일과 27일 두 개안이 거론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총재 선거를 내달 27일에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내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을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10명 넘게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중견-진진 의원들 지지를 받는 40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여론 조사에서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를 차지해 온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오는 22일 지역구인 돗토리현에서 정식으로 입후보 의사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주변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전했으며, 총재 선거 일정이 발표된 뒤 정식으로 입후보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패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지난 16일 자신이 속한 파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만나 출마 의사를 전했고, 아소 부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배우 레이놀즈 아내 라이블리 2500만원 청바지 화제

구멍 송송 뚫렸는데...가격 논란

2000만원짜리 청바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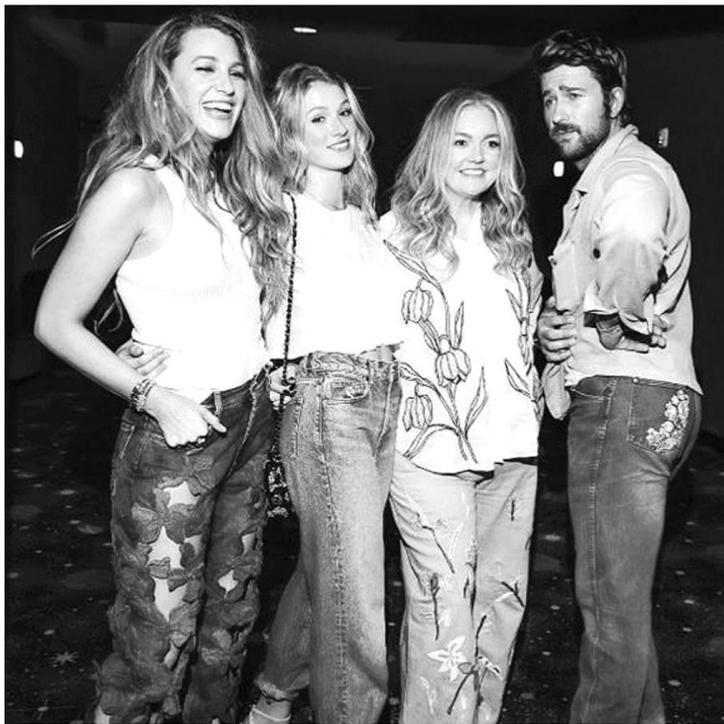
할리우드 스타 레이놀즈(47)의 아내인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36)가 입은 2000만원대 청바지가 화제다.

18일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라이블리가 지난 6월 신작 영화 시사회에 입고 나온 1만 9000달러(약 2574만원)짜리 디자이너 청바지가 적정한 청바지 가격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 청바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에서 제작한 것으로, 허벅지부터 발꿈치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꽃무늬 자수와 함께 구멍이 뚫린 것이 특징이다. 유명 연예인과 상위 1% 부유층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이례적인 제품이지만, 그동안 장 폴 고티에, 돌체 앤 가바나, 랄프 로렌 같은 브랜드의 최고가 청바지가 대부분 2500~3500달러(약 339만~474만원)대였던 것에 비하면 특히 비싼 가격이다.

청바지 산업의 지속가능성 감시 단체인 트랜스포머 재단의 에니 웰스 대변인은 청바지의 적정 가격을 100~400달러(약 13만 5000~54만 2000원) 수준으로 본다면서 "400달러를 넘어가면 그 브랜드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블리는 '기십걸' 등 드라마와 영화로 인기를 끈 청춘 스타로, 2012년 레이놀즈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고 있다. 라이블리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절친'으로도 유명하다. /연합뉴스



블레이크 라이블리(맨 왼쪽)가 입은 1만9천달러짜리 청바지.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